



2019년 3월 31일(제922호) 시순 제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달려가 이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께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받아 챙겨서 먼 고향으로 떠나 방탕한 끝에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거지가 되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다는 줄거리입니다. 이는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자비의 역사, 곧 구세사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대목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재회 장면입니다.

루카복음 15장 20절에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전하지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아들이 떠나간 자리를 아버지는 바라보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단번에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달려갔다’고 전합니다. 거기에 서서 가만히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는 건 그만큼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전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용서해주는 의미로 꼭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지요. 이것이 아들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를 때리는 대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의 죄를 드러내거나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아버지는 입 맞추심으로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포용으로 덮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 자비와 용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지만, 떠나보낸 그 자리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리고는 당신 아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주시지요. 이 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나 자신으로, 세례성사 때 그리스도의 빛의 도우심으로 새로이 태어날 때의 나 자신으로, 혼인성사 때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약속하던 그때의 나 자신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원철(필릭스) 신부
비룡(25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여호 5,9ㄱ-10-12
- 회 답 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제 2 독 시 2코린 5,17-21
-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 복 음 루카 15,1-3.11ㄴ-32
- 영 성 제 송 아들이야,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신석복 마르코



성인명: 신석복 마르코 (申錫福 Mark)

신분: 성인, 순교자

활동연도: 1828-1866년

경상도 밀양의 명례(현,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사람인 신석복(申錫福) 마르코는 장사를 하면서 생활하던 신자로, 1866년 병인박해 때 창원 마포로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오 야고보 등과 함께 대구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때는 신 마르코가 천주교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해온 지 10여년이 지난 뒤였다.

이에 앞서 대구 포졸들은 신 마르코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명례로 들이닥쳐 그의 집을 찾아낸 뒤 재산을 탈취하였다. 또한 여러 날을 수소문한 끝에 그가 장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신 마르코가 돌아올 만한 길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김해 가산이라는 곳에서 신 마르코를 만나 천주교 신자임을 확인한 다음, 곧장 체포하여 밀양으로 압송하였다. 포졸들은 밀양에서 하루를 머무는 동안, 신 마르코에게 무수한 형벌을 가하였다. 그런 다음 그를 대구로 끌고 갔는데, 이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신 마르코의 형제들이 돈을 마련해서 대구로 가는 일행을 뒤쫓았다. 그들 일행을 만난 신 마르코의 형제들은 포졸들에게 수작하며, 신 마르코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그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한 푼도 포졸들에게 주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래서 신 마르코는 대구로 가는 동안 더 자주 능욕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대구에 도착해서는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 유흥이 낭자하고 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저를 놓아주신다 하여도 다시 천주를 봉행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관장은 이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다시 신 마르코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며칠을 옥에 가두었다가 교수형을 집행하였으니, 이때가 1866년 3월 31일(또는 3월 18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였다.

복 음 록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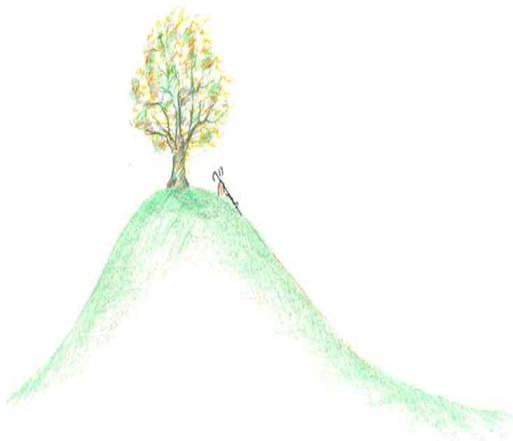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기다리는 마음

멀리서도 보고,
편히 오라고
노랑 리본 매 놓고
기다립니다.

마음이 저어하여,
돌아가지나 않을까
걱정이 돼,
나무에 노랑 리본 매 놓고
기다립니다.

오는 발걸음
편히 오라고.



상화이야기

탕자의 귀환



티소, 1862년 제작
캔버스 위 유화, 개인소장

본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던 탕자의 귀환과는 달리 18세기의 북유럽 마을에서 일어나는 한 장면처럼 그려져 있다. 왼쪽하단에 거의 벌거벗은 한 젊은 청년이 보인다. 다른 인물들은 모두 두툼한 겉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분명 본 상황이 일어나는 계절이 여름은 아닌 듯 하기에, 분명히 이 청년은 오랜 기간 추위에 떨었을 것이다. 또한 신발도 거의 헤어져 닳아 있고, 갈비뼈도 앙상하게 보인다. 강아지들은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짖고 있고, 다른 인물들도 본 청년을 그다지 반기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오른쪽에는 뒷짐을 지고 이 장면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이도 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청년의 나이 든 아버지만이 계단을 내려와 청년을 반기고 있다.

이제 곧 청년은 아버지의 품에서, 가족과 함께 다시 부족함 없는 나날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 청년은 분명히 집을 나가기 전과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족과 부모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변모시킨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마친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4주일: 청룡오리정 양정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때·곳: 4월 1일(월) 15:00,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동명 22진(레바논) 파병미사
 때·곳: 4월 3일(수) 19:00, 국제평화지원단
- 2019년 군중장교 입영 전 오리엔테이션
 때·곳: 4월 4일(목) ~ 5일(금), 안양 아론의 집
- 노도(2사단) 성당 축성식
 때: 4월 6일(토) 10:00

“모든 이를 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